

칼럼

장기채 주필



그래서 봄은 탄생이며 새로운 출발이다

이제는 봄이다. 이 봄에 흥분해 보자. 때 되면 맞는 시간이지만 늘 봄은 새롭기만 하다. 그래서 봄은 탄생이며 새로운 시작이자 출발이다. 세상의 달력은 1월이 시작이지만 캠퍼스의 달력은 3월이 시작이다.

꽃 내음 가득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입춘이 지난지도 오래고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갔다.

개구리는 잠에서 깨어나 물장구를 친다. 바로 경칩(驚蟄)이 코앞이다.

온 산천초목에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새봄과 더불어 탄생되는 신입생의 계절이다. 3월의 시작은 언제나 새롭기만 하다. 여기에는 희망과 기대가 부풀어 있고 그 사이에는 불안과 초조의 두려운 기운이 스쳐가는 긴장된 시기기도 함께 있을 것이다.

풀과 나무들이 제 빛을 띠기 시작하며 새 살을 내릴 때 캠퍼스는

또한 새 숨소리로 가득 찬다. 그 싱그러움 속에서 크게 한 번 호흡해 보면 들숨과 날숨 속에 지난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보냄과 맞음의 의미가 새로워진다.

수많은 가능성을 지닌 채 출발하는 모든 신입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들은 틀림없이 새로운 활력이 되어 기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들 신입생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새로운 환경과의 만남일 것이다. 미지의 세계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게 부담이 생길 것이다. 오늘 맞은 봄은 처음 맞은 봄이어서 더욱 새롭다.

이미 지난 그 어느 해의 봄이 아니기에 처음이며 그래서 새로운 탄생이자 시작이든 또 희망이다.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머무는 초·중·고의 신입생은 어른들이 거들어 주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3월의 캠퍼스는 활기에 넘친다. 흥분과 기대에 들뜬 새내기들의 호기심에 찬 눈빛만으로도 대학은 생동한다. 하지만 대학진학이 인생의 목표였던 새내기들에게 인생이라는 게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이 전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학문적 지식만이 아닌 인생의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오로지 대학 입학시험 스케줄에 맞추어 고교시절, 전인생을 보내야 했던 신입생들,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입시공부를 해왔을 그들에게 자율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숨을 골라야 할 때다. 그래서 탄생은 박한 감동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시작은 곧 희망의 서곡이다. 어떤 이는 가슴 벅차하며, 또 어떤 이는 떨려야 하는 출발이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흥분이라고 말했다. 지나온 길

이 무슨 상관이랴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아니겠는가. 그 날들이 그대를 앞에 펼쳐져 있는데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대들의 매일매일은 생애 최고의 날들이니 것이다. 진정처럼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제 출발선에 다시 섰다. 그동안 학교와 학원과 과외로 이어지던 미로에서 헤방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대학은 만신창이다. 학문의 전당이란 말은 무색해진다. 오래다. 실용의 미명아래 기초학문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저 돈 잘벌어 출세해서 부자로 사는 길을 찾지만 바쁘다.

대학을 입학하는 신입생들이여, 대학은 민족의 생명이며 그 경쟁과 부흥의 저력이며 미래의 비전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지도적 책임과 세계로 약진하는 조국에 대한 염속한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신입생들이여, 이 세상은 아름답다. 무릇 모든 신입생은 올바르게 확립된 가치와 정성된 지식을 배우고 진리를 익힐 권리가 있다. 신입생들이여, 여러분의 뜻 깊은 입학과 새로운 장도를 축하한다. 특히 대학 신입생은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서 제 힘으로 풀어야 한다. 기밀 언덕은 없다. 물러설 곳도 없지 않는다.

社說

고령자 면허 자진반납 유도해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대중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니 기대가 크다.

물론 부산에서 시도하는 정책이긴 하나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는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광주나 전남의 경우 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관심있게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도로교통공단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부산시와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남부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만 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비율은 0.2%인 44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부산시가 이를 적극 검토하면서 하반기 시행이 추진됐다.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 제안을 수용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초인자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 증가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정책이 성과를 거둬 정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鱗 비늘 인
潛 잠일 잠
羽 깃 우
翔 날 상

鱗潛羽翔

▷ 뜻 : 비늘 있는 고기는 물 속에 잠기고, 날개 있는 새는 공중에 날.

기 고

박종열 나주경찰서장



대형 재난시 골든타임 확보되어야

2017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난 해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여 29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도시 전체는 물론 전 국민이 슬픔에 잠긴 바 있다.

화재원인 규명 과정에서 대형 참사의 원인이 불법과 관리부실, 안전불감증과 함께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들로 인해 결국 화재 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2010년 해운대 아파트 화재 등 대형 화재 때마다 반

복적으로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소방청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연소확대가 전국적으로 560건, 매년 100건 이상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형 화재 위험에 노출, 화재 발생 초기 진압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제천 화재 이후 소방청이 오는 6월 27일부터 화재 진압과 관련 차량 이동시 생길 차량 훼손, 구제적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더불어 소방차 등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 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추진 될 것으로 보여 불법 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지는 사례는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경찰서에서도 혁신도시내 중흥오루스와 앞 도로를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병행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되는 대형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뉴스에 종종 모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소방차나 구급차에 대한 길터주기로 인해 소중한 인명을 구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는 아직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길터주기에 나물라라 하고 오히려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이번 제천 화재와 같은 인재는 볼 때면 여전히 우리사회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다. 맹자 이후편에 나오는 역지사지 연에서 비롯된 말로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이다.

재난은 항상 예고없이 찾아온다. 또한 그 대상은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일 수 있음을 명심하며, 재난에 대해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형화재 등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문화융성' (Cultural Fusion) featuring a woman and a man. Text: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What if we switch perspectives?). Includes a quote: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Thinking from the other person's perspective, won't we be more considerate and respectful?).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